

『삼국연의』에 나오는 투척 · 포획 · 저지 暗器에 관하여

홍윤기*

<目 次>

1. 서론
2. 투척 암기
 - 1) 유성추(流星鎗)
 - 2) 삼개유성추(三個流星鎗)
 - 3) 비추(飛鎗)
3. 포획 암기
 - 1) 올가미(套索)
 - 2) 줄 달린 갈고리(鈎索)
4. 저지 암기
 - 1) 마름쇠(鐵蒺藜)
 - 2) 말 걸이 줄(絆馬索)
5. 그밖에
 - 1) 독약(毒藥)
 - 2) 냉전(冷箭)과 암전(暗箭)과 암노(暗弩)
6. 결론

1. 서론

전쟁은 인간의 폭력성과 파괴성을 대규모적으로 그리고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국가집단끼리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원시 시대나 고대의 전쟁은, 인구의 증가 또는 식량자원의 감소로 말미암아 식량자원의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할

*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고대문학 교수

때, 이러한 위기상황을 약탈을 통해 해결하고 또한 이러한 약탈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인구의 수를 줄이는 장치로서 발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식량자원이 안정적으로 공급 유지되는 현재, 비교적 높은 수준의 문화문명을 누리고 있는 국가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군비를 확장하고 있다. 전쟁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집단이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 국가집단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강제·관철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주변 강국들의 유무형의 군사적 압박과 남북의 휴전대치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는 이러한 전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본고는 소설 『삼국연의』¹⁾에 묘사된 전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커다란 목적 아래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소설 『삼국연의』 안에 나오는 병기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 목적은 소설 『삼국연의』에 나오는 암기(暗器)들과 관련된 묘사를 형상적으로·역사적으로·과학적으로·수리적²⁾으로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있다.

본고에서 정의하는 암기란, 사용자가 기습·매복·은닉 등의 방법을 써서 적이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투척·설치하여 적에게 傷害를 입히거나 적을 제압·포획하거나 적의 접근 또는 통행을 방해·저지하는 무기이다. 따라서 암기의 특징은 상대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은닉하여 기습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그 크기가 작고 가볍기는 하지만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고정된 크기가 없고, 다양한 질료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본고가 다룬 『삼국연의』에 나오는 암기의 종류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투척 암기³⁾: 유성추(流星鎗), 삼개유성추(三個流星鎗), 비추

1) 본고에서 『삼국연의』는 소설을, 『삼국지』는 역사를 가리킨다.

2) 본고의 모든 도량형은 다음 도서를 기준으로 하였다.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漢語大詞典附錄·索引』,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3) 본고는 『중국문화연구』 제33집에 실은 『삼국연의』에 나오는 손으로 던지는 암기에 관하여』의 뒤를 잇는 논문이다. 『삼국연의』에는 비도(飛刀)·비차(飛叉)·단극(短戟)·소극(小戟)·차돌(石子)·방촌지인(方寸之刃)·촌철(寸鐵)과 같은 줄이 없는 '손으로 던지는 암기'

(飛鎚): ② 포획 암기: 올가미(套索), 줄 달린 갈고리(鉤索); ③ 저지 암기: 마름쇠(鐵蒺藜), 말 걸이 줄(絆馬索); ④ 그밖에: 독약(毒藥) 등.

본고는 大魁堂本을 底本으로 하고 있는 毛宗崗本 『三國演義』를 연구 텍스트로 삼았다.⁴⁾

2. 투척 암기

투척 암기란, 적에게 투척 타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암기이다. 본 절에서 다루는 투척 암기란 줄 달린 투척 타격 암기를 가리킨다.

1) 유성추(流星鎚)

(1)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그리고 『삼국지』와의 대조

유성추(流星鎚)⁵⁾는 제27회에서 변희(卞喜)가 관우(關羽)를 상대로 몰래 던지는 암기로 1번 나온다.

27회: 그는 성이 변(卞)이고 이름은 희(喜)였는데, 유성추(流星鎚)를 잘 다루었다. 그는 본디 황건적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무리였으나 나중에 조조에게 몸을 맡기어 관문을 지키는데 뽑혔었다. …… 변희가 몰래 비추

가 나온다. 중국의 고대병기 전문가 周緯는 『中國兵器史稿』에서 청대의 암기를 손으로 던지는 것(手擲), 줄 달린 것(索系), 기계로 쏘는 것(機射), 약물을 품어내는 것(藥噴) 4종류로 나누었다. 제33집의 '손으로 던지는 暗器'의 표제어는 그의 분류를 따르고자 한 것이었다. 이번호의 논문 표제어도 그의 분류를 따라서, '줄 달린 암기'를 쓰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분류는 암기를 사용방법이나 형태나 일부재료와 작동형태 등의 기준을 뒤섞어서 분류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암기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암기들을 그 용도로 기준삼아 투척·포획·저지 암기로 분류하였다.

4) 羅貫中 著, 毛宗崗 評改, 『三國演義』,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5) 『삼국연의』 일부 판본이나 그 밖의 고대 문헌들은 망치를 가리키는 단어로 鎚·槌·錘·椎 등의 글자를 두루 쓰고는 있지만, 형태나 용도가 서로 같은 '망치'를 가리키고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을 모두 같은 병기로 보았다.

(飛鎚)를 꺼내더니 갑자기 돌아서며 관우를 향해 유성추를 날렸다. 관우는 청룡도로 날아오는 유성추를 후려치고는 변희에게 달려 들어가 청룡도를 휘둘러 단칼에 변희를 두 토막을 내놓았다.⁶⁾

변희(卞喜)는 조조의 부하로서, 사수관(汜水關)을 지키는 수장(守將)이다. 변희는, 관우가 '다섯 개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조조의 여섯 명의 장수의 모가지를 베다(過五關, 斬六將)'는 이야기의 한 마디를 구성하는 인물이다.⁷⁾ 그런데, '過五關, 斬六將'은 허구로 꾸며낸 이야기이다. 따라서 변희(卞喜)는 역사 『三國志』의 기록에는 나오지 않는 가공의 인물이다. 유성추 또한 역사 『三國志』에는 나오지 않는다. 위의 소설 묘사에서는 유성추(流星鎚)와 비추(飛鎚)를 동일한 병기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설가는, 그에게 황건적의 무리였다는 경력을 덧씌우고, 또 의도적으로 야비한 성격의 병기인 암기를 짝지어 줌으로써, 긍정적 인물인 관우를 기습 공격하는 부정적 인물인 변희의 형상을 그럴듯하게 빚어내고 있다.

(2) 유성추(流星鎚)의 정의와 생김새 및 관련 역사 기록

『中國古代器物大詞典 - 兵器·刑具』⁸⁾은 유성추(流星鎚)를 “줄을 망치머리에 걸어 묶어서 던지는 병기이다. 던진 망치머리가 날아가는 모습이 마치 流星처럼 빠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⁹⁾라고 정의하였다.

유성추의 사용법에 대해서, 『武備志』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武備志·軍資乘·器械三』: “비추(飛鎚)는 바로 유성추(流星鎚)이다.

6) 27회: 姓卞, 名喜, 善使流星鎚: 原是黃巾餘黨, 後投曹操, 撥來守關。……卞喜暗取飛鎚, 擲打關公。關公用刀隔開鎚, 趕將入去, 一刀劈卞喜爲兩段。

7) 관우는 첫 번째로 동령관(東嶺關)을 지나면서 공수(孔秀)를 죽였고, 두 번째로 낙양성(洛陽城)을 지나면서 한복(韓福)과 맹탄(孟坦)을 죽였고, 세 번째로 사수관(汜水關)을 지나면서 변희(卞喜)를 죽였으며, 네 번째로 형양(滎陽)을 지나면서 태수(太守)인 왕식(王植)을 죽였고, 다섯 번째로 황하(黃河)의 나루터를 지나면서 진기(秦琪)를 죽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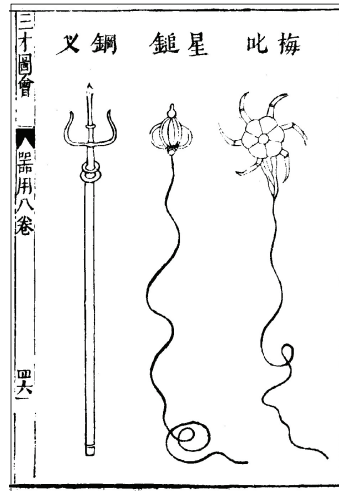
8) 陸錫興, 『中國古代器物大詞典 - 兵器·刑具』,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2002. 앞으로는 이를 줄여서 『병기사전』으로 부르기로 한다.

9) 『병기사전』: 流星鎚: 用繩索扣繫鎚頭的擲擊兵器。因鎚擲出疾如流星, 故名。

(한 줄 끝에) 망치머리가 (저마다 한 개씩) 두 개가 달려있는데, 앞의 것은 1차 공격용 망치머리이고, 뒤의 것은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1차 공격이 실패하면 줄을 당겨 다시 던져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망치머리이다.”¹⁰⁾

[그림1]의 가운데 병기가 明代 王圻의 『三才圖會』에 묘사된 성추(星鎚)이다. 쇠망치에 줄을 달아 던져서 타격하는 암기이다. 줄을 단 것은 원심력을 이용하여 휘둘러 타격을 가하기 위한 것이며, 1차 투척이 실패하였을 때 끌어당겨 다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周緯는 『中國兵器史稿』에서, 유성추는 쇠망치의 크기나 중량은 사용하는 사람의 체력을 기준으로 삼아 만들어지는데, 보통 2-2.5kg정도이며, 줄의 길이는 8-10m쯤 된다고 한다.¹¹⁾



[그림1] 성추(星鎚)

한편, 쇠망치머리(鐵椎)를 기습용 투척 암기로 사용한 실제 예는 『史記』의 역사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史記·留侯世家』: “張良은 일찍이 힘 센 사람을 찾아내었고, 쇠망치머리(鐵椎)를 만들었는데, 그 무게는 120근¹²⁾(30.36kg)이나 되었다. 秦始皇이 동쪽을 순시할 적에, 張良은 힘 센 사람과 함께 博浪沙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저격(狙擊)하였으나, 뒤따르는 수레(副車)를 잘못 맞히고 말았다.”¹³⁾

10) 『武備志·軍資乘·器械三』: 飛鎚, 卽流星鎚也。鎚有二, 前者爲之正鎚, 後面手中提者爲之救命鎚。
 11) 周緯, 『中國兵器史稿』, 百花文藝出版社, 天津, 2005. 189쪽.
 12) 秦 1斤=253g이므로, 120×253g=30.36kg. 기록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
 13) 『史記·留侯世家』: 良嘗 得力士, 爲鐵椎重百二十斤。秦皇帝東游, 良與客狙擊秦皇帝博浪沙中, 誤中副車。

이때 사용하였던 쇠망치머리(鐵椎)가 자루가 있는 휘두르는 병기였는지, 망치머리만 있는 던지는 병기였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다. 30kg짜리 쇠망치머리를 멀리서 던질 수 있는지도 미심쩍기는 하지만, ‘몰래 숨어 있다가 저격(狙擊)하였으며’, 저격 실패 후에 현장에서 아무 일 없이 빠져 나온 것으로 보아, 자루가 없는 쇠망치머리 暗器라고 여겨진다. 이 쇠망치머리에 대하여, 顏師古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쇠망치(鐵錘)는 쇠(鐵)로 망치머리(錘)를 만드는데, 오늘날의 저울추(稱錘)와 같다. 이것으로 또한 사람을 칠 수 있는데, 따라서 兵器 가운데 하나이다. 張良이 秦始皇의 副車를 친 것이 바로 이것이다.”¹⁴⁾라고 하였다. ‘錘’자의 원래 뜻은 ‘稱錘’이다. 물건을 저울에 달아 질량을 잴 때, 반대 쪽 접시에 얹는, 기준이 되는 쇠붙이를 뜻한다. 顏師古는 張良이 썼던 쇠망치(鐵錘)를 자루가 없는 ‘稱錘’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張良이 던졌던 암기는, 자루도 없고, 줄로도 묶지 않은 쇠망치머리였을 것이다. 유성추는, 쇠망치머리에 줄을 묶는 변형을 가한 병기라고 할 수 있다.

2) 삼개유성추(三個流星鎚)

(1)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그리고 『삼국지』와의 대조

삼개유성추는, 제97회에 제갈량이 30만 군사를 거느리고 魏나라로 쳐들어오자, 그에 맞서는 魏나라 장수 王雙이 쓰는 병기로 1번 나온다.

97회: “..... 그(왕쌍)는 2石(≒53kg)¹⁵⁾의 張力을 가진 철태궁(兩石鐵胎弓)을 당기며, 세 개의 쇠망치가 달린 유성추(三個流星鎚)를 감추고 다니는데, 던졌다하면 죄다 맞힐 수 있습니다. 그는 만 명이 사내라도 그에게는 맞설 수 없는 용맹함을 갖췄습니다. 그는 隴西郡(隴西郡) 적도현(狄道縣) 사람으로 성은 왕(王)이고 이름은 쌍(雙)이며, ” 장역이 급히 말머리를 돌리려고 하였으나, 왕쌍이 던진 유성추(流星鎚)가 먼저 날

14) 漢 史游『急就篇』에 대한 顏師古의 注: “鐵錘, 以鐵爲錘, 若今之稱錘, 亦可以擊人, 故從兵器之例。 張良所用擊秦副車, 卽此物也。”

15) 後漢 三國 1石=26,400g=26.4kg. 2石=26.4×2=52.8kg≒53kg

아가, 바로 장억의 등의 한 가운데를 맞혔다. 장억은 말안장에 엮어진 채로 달아났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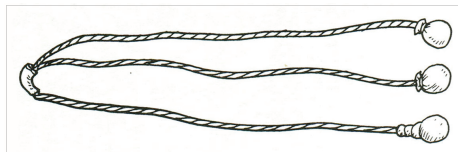
왕쌍은 역사 인물이지는 하지만, 왕쌍의 형상이나 삼개유성추에 관한 묘사는 역사 기록에는 나오지 않는 허구이다. 삼개유성추를 변방지역으로 이민족이 많이 거주하였던 룡서(隴西: 지금의 甘肅省 일대) 출신 사람이 쓰는 병기로 묘사하고 있는데, 왕쌍이 량주(涼州) 룡서군(隴西郡) 적도현(狄道縣) 사람이라는 내용은 『後漢書』와 『三國志』 어디에도 없다. 꾸며낸 이야기이다. 세 개의 쇠뿔치가 달린 유성추(三個流星鎚)를 줄여서 그냥 유성추라고도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묘사는, 『三國志·蜀書·諸葛亮傳』의 “章武 6년 (228년) 봄, 위나라 장수 왕쌍이 군대를 이끌고 제갈량을 추격하였는데, 제갈량은 그와 싸워서 깨뜨리고 왕쌍의 목을 베어 한중으로 돌아왔다.”¹⁷⁾는 기록을 이야기로 꾸며낸 것이다. 『삼국지』에는, 왕쌍이 제갈량한테 죽었다는 정도의 기록만 나올 뿐이다.

(2) 삼개유성추(三個流星鎚)의 정의와 생김새

삼개유성추(三個流星鎚)는, 중국 고대의 역사서나 병법서 및 『병기사전』에서도 그 존재를 찾을 수 없는 병기이다. 따라서 중국 고대에 실제로 쓰였던 兵器라기 보다는, 『삼국연의』가 만들어낸 가상의 병기로 여겨진다.

[그림2]는 남아메리카의 인디언이 사용하였던 무기 가운데, 세 가닥의 줄 끝에 각각 세 개의 무거운 뿔치를 묶은 다음 반대쪽 줄 끝을 하나로 묶은 Achico라는 무기



[그림2] Achico

이다. 길이는 약 70cm, 무게는 약 1.5kg 쯤 되며, 주로 사냥용으로 쓴다.¹⁸⁾ 삼개 유성추(三個流星鎚)는 아마도 achico와 비슷한 생김새의 병기라고 생각하면 될

16) 97회: “…… 開兩石鐵胎弓, 暗藏三個流星鎚, 百發百中, 有萬夫不當之勇, 乃隴西狄道人, 姓王, 名雙, ……” …… 巖急回馬時, 王雙流星鎚早到, 正中其背。巖伏鞍而走。

17) 『三國志·蜀書·諸葛亮傳』: 六年, …… 魏將王雙率軍追亮, 亮與戰, 破之, 斬雙, 還漢中。

18) 市川定春 著, 『武器事典』, 新紀元社, 東京, 1996. 240쪽.

것이다.

3) 비추(飛鎚)

(1)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그리고 『삼국지』와의 대조

『삼국연의』에 비추(飛鎚)는 모두 2번 나온다. 제27회에서 변희가 쓰는 유성추를 달리 부르는 암기로 1번, 제94회에서 철리길(徹里吉)의 오랑개인 강족(羌族)의 병사가 다루는 병기로 1번 나온다. 제27회의 내용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94회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94회: 철리길은 아단과 월길 원수에게 명령을 내려 강족의 병사 25만을 일으켰다. 이들은 모두 활과 쇠뇌, 창과 칼과 쇠가시망치(蒺藜)와 비추(飛鎚)를 익숙하게 다루었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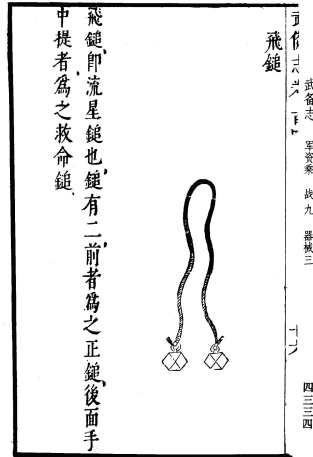
『삼국연의』에 따르면, 철리길은 서강(西羌)의 국왕이다. 제갈량의 1차 북벌 때에, 철리길은 위(魏)나라 도독 조진(曹眞)의 요청을 받아들여, 승상(丞相)인 아단과 원수(元帥)인 월길을 파견하여 조진을 지원한다. 그런데 철리길·아단·월길 이 세 사람 모두 역사 『삼국지』에는 나오지 않는 가공인물이다. 비추(飛鎚) 또한 역사 『삼국지』에는 나오지 않는 병기이다. 『삼국연의』는 비추를 야만스러운 異民族이 다루는 병기로 묘사하고 있다.

(2) 비추(飛鎚)의 정의와 생김새

변희가 사용하는 이 유성추를 제27회는 비추(飛鎚)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武備志』에서도 飛鎚가 바로 流星鎚라고 하였으니, 둘은 같은 병기를 달리 일컫는 것일 뿐임을 알 수 있다. 비추는 개인끼리의 싸움에서뿐만 아니라, 대규모적인 전투에서 ‘적진(敵陣)을 물리치는’ 수성용(守城用) 병기로도 쓰였다. [그림3]은 『武備志』에 묘사된 비추(飛鎚)이다.

19) 94회: 徹里吉 命雅丹與越吉元帥起羌兵二十五萬, 皆慣使弓弩、鎗刀、蒺藜、飛鎚等器。

『武備志·軍資乘·戰九·器械三』: 비과(飛搗)·비구(飛鉤)·비추(飛鎚)는 모두 길이가 짧은 병기(短兵)이지만 긴 거리를 두고 쓰는 것이다. 이 병기로 적진(敵陣)을 물리치는 훌륭한 병기이다.²⁰⁾



〔그림3〕 비추(飛鎚)

3. 포획 암기

1) 올가미(套索)

(1)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그리고 『삼국지』와의 대조

올가미(套索)는 77회에서, 동오(東吳)의 병사들이 달아나는 관우를 사로잡는데 쓰는 암기로 1번 나온다.

77회: 관우가 한창 달려가는데 ‘와’하며 외치는 소리가 일어나며 길 양 옆에 숨어 있던 군사들이 모조리 튀어나왔다. 이들은 긴 갈고리(長鉤)와 올가미(套索)를 들고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이들은 먼저 관우가 타고 있던 말의 다리를 걸어 쓰러뜨렸다.²¹⁾

위 이야기는 『三國志·吳書·吳主傳』의 다음 기록을 바탕으로 꾸며낸 것이다.

『三國志·吳書·吳主傳』: 건안(建安) 24년(219) 12월, 반장(潘璋)의 사마인 마충이 관우 및 그의 아들 관평과 도독인 조루 등을 장항에서 붙잡았다. 마침내 형주를 평정하였다.²²⁾

「呂蒙傳」과 「潘璋傳」의 기록도 위의 기록과 큰 차이는 없다. 올가미(套索)도

20) 『武備志·軍資乘·器械三』: 飛搗、飛鉤、飛鎚, 皆短兵而長用者也, 以之闢陳良利器矣。

21) 77회: 正走之間, 一聲喊起, 兩下伏兵盡出, 長鉤、套索一齊並舉, 先把關公坐下馬絆倒。

22) 『三國志·吳書·吳主傳』: 十二月, 璋司馬馬忠獲羽及其子平、都督趙雲等於章鄉, 遂定荊州。

나오지 않으며, 관우의 말이 올라미(套索)에 걸려 쓰러지면서 관우가 붙잡혔다는 기록도 없다.

(2) 올라미(套索)의 정의와 생김새

『병기사전』은, 올라미(套索)를 “줄을 엮어 만든 올라미. 줄로 묶어 꼼짝 못하게 하는 암기.”²³⁾로 정의하였다.

올라미(套索)의 한 종류인 비단줄 올라미(錦套索)에 대한 관련 기록을 통해서, 올라미(套索)의 생김새를 유추해보자. 周緯는 『中國兵器史稿』에서 비단줄 올라미(錦套索)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설을 달았다.

이 병기는 실제로 줄을 엮어 만든 올라미(綿繩套索)의 변형 형태로, 닭발 올라미(雞爪索)나 용수염 갈고리(龍鬚鉤)와 비슷하게 생기는 하였지만, 발과 갈고리가 없을 뿐이다. 줄의 길이는 1장2척(약 4m)²⁴⁾이고, 일반적으로 면으로 짜서 만드는데, 매우 튼튼한 편은 아니다. 가장 좋기로는 사슴의 등 힘줄이나 소의 등 힘줄을 찢어서 그물 줄을 만들며, 사람의 머리카락(人髮)과 순사(純絲)와 이 3가지 재료를 하나로 섞어서 짜서 만드는데, 매우 질겨서 칼로 자르려고 해도 잘라지지 않는다. 줄의 한 쪽 끝에는 갈고리가 달려 있고, 갈고리 끝은 왼쪽 오른쪽으로 갈라져 있어서 그 생김새가 마치 배의 닻처럼 생겼고, 날카로운 끝은 뒤로 휘어져 있다. 갈고리로부터 2척(약67cm)²⁵⁾ 길이 되는 곳까지는 또한 짧고 작은 날카로운 가시가 나 있어서 적이 손으로 잡지 못하게 되어 있다. 줄의 뒤쪽 끝에는 또한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팔 고리가 있어서 사용할 때는 손을 팔 고리에 끼워 넣고 쓴다. 팔 고리를 (팔에) 먼저 잘 걸고



[그림4] 綿繩套索과 錦套索

23) 『병기사전』: 綿繩套索。索繫暗器
 24) 현대의 도량형 단위로 1丈=10尺=333.3cm, 1丈2尺=1.2×333.3cm=399.96cm, 약 4m.
 25) 2尺=2×33.33cm=66.66cm

나서 갈고리 부분을 꺼내는데, 갈고리 부분을 몇 차례 잘 흔들어 털어준 다음에 써야만 가지 때문에 서로 엉키는 것을 피할 수 있다.²⁶⁾

[그림4]는 綿繩套索과 錦套索의 생김새이다.²⁷⁾

2) 줄 달린 갈고리(鉤索)

(1)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그리고 『삼국지』와의 대조

줄 달린 갈고리(鉤索)는 67회에서, 조조의 군사들이 방덕을 사로잡는 데 쓰는 암기로 1번 나온다.

67회: 이때 갑자기 ‘와’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다. 군사와 말들이 빨려들어 가듯이 커다란 구덩이 속으로 빠지고 만 것이었다. 구덩이 위 사방에서 여기저기 줄 달린 갈고리(鉤索)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듯 덮쳐들었다. 조조의 군사들은 방덕을 사로잡아 산언덕 위로 끌고 갔다.²⁸⁾

위의 내용은 『三國志·魏書·龐德傳』의 “태조(조조)가 한중을 평정하자, 방덕은 무리의 사람들을 따라서 함께 (태조에게) 항복하였다.”²⁹⁾는 기록을 이야기로 꾸민 것이다. 『삼국지』에는, ‘줄 달린 갈고리(鉤索)’가 나오지 않는다. 방덕이 ‘구덩이’에 빠져 ‘줄 달린 갈고리(鉤索)’로 끌려 나가 붙잡히게 되었다는 기록은 더더욱 없다.

26) 周緯, 『中國兵器史稿』 錦套索: 此器實爲棉繩套索之變相, 與雞爪索龍鬚鉤相似, 唯無爪與鉤耳。索長一丈二尺, 平常用棉紗制成, 不甚堅固, 最好將鹿脊筋或牛脊筋劈成網絲, 與人髮、純絲三物, 屢合一處而編之, 則堅韌異常, 刀割不斷矣。錦索之一端有一鉤, 鉤頭左右歧出, 形如舟錨, 銳端向後。近鉤二尺處, 亦制有短小鋒利之芒刺, 以防敵人之接握。索之後端亦有千斤套腕, 用時手先穿入套腕, 抽去活扣, 取出鉤頭, 猛抖數次, 以免芒刺紐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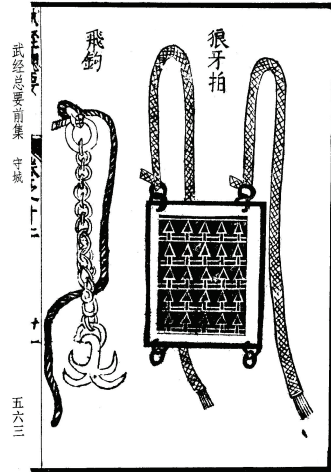
27) _____, 『圖說·中國武器集成』, 學習研究社, 東京, 2006.

28) 67회: 一聲喊起, 天崩地塌, 連人和馬跌入陷坑內去。四壁鉤索一齊上前, 活捉了龐德, 押上坡來。

29) 『三國志·魏書·龐德傳』: 太祖定漢中, 德隨衆降。

(2) 줄 달린 갈고리(鉤索)의 정의와 생김새

『병기사전』은 줄 달린 갈고리(鉤索)를 ‘투척용 갈고리(飛鉤)이다.’라고 하였다. 이 병기는 수성 병기로, 또는 갈고리류 병기로 분류할 수도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적이 생각지 못한 틈에 적을 낚아채어 포획하는 병기로 보아서 포획 암기로 분류하였다. 전국시기(戰國時期)에 쓰인 것으로 여겨지는 『六韜』에, 이 병기의 생김새에 관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있으니, 역사가 오래된 병기이다.



[그림5] 비구(飛鉤)

『六韜·軍用』: 투척용 갈고리(飛鉤), 전체 갈고리 길이는 8촌(18.48cm), 갈고리 갈래 길이는 4촌(9.24cm), 자루 길이는 6척(138.6cm)이상이며³⁰⁾, 1,200개를 준비합니다. 적의 무리 안에 던져서 사용합니다.³¹⁾

이 투척용 갈고리(飛鉤)의 사용법과 효과에 관해서는 『武經總要·守城』에 자세한 기록이 있다. [그림5]는 투척용 갈고리(飛鉤)에 관한 그림이다.

宋 曾公亮 『武經總要·守城』: 투척용 갈고리(飛鉤)는 쇠 솔개(鐵鷗)라고도 부른다. 갈고리의 발끝은 뾰족하고 길고 날카로우며, 사방으로 뻗쳐 나와 구부러져 있다. 쇠사슬을 (갈고리 밑동에) 꿰어서 마(麻)로 (꼬아) 만든 줄로 이어 만든다. 적의 군사는 겹 갑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있(어서 갈고리에 걸리는 부분이 많은)는데다가 또한 (아군이 성 위에서 쏘거나 던지는) 화살과 돌을 무서워하여 성위를 올려다 볼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아군은 성위에서) 그들이 모여드는 곳을 지켜보다가 적들이 뺨곡하게 모인 무리 안에 갈고리를 던져서 재빠르게 낚아챈다. 그러면 갈고리 한 개마다 두 세 명의 적병을 낚아 챌 수 있다.³²⁾

30) 戰國時期 1尺=10寸=23.1cm, 1寸=2.31cm, 8寸=8×2.31cm=18.48cm, 4寸=9.24cm, 6尺=6×23.1cm=138.6cm

31) 『六韜·軍用』: 飛鉤, 長八寸, 鉤芒長四寸, 柄長六尺以上, 千二百枚, 以投其衆.

한편, 송(宋)과 금(金)의 전쟁에서 이 줄 달린 갈고리가 사용된 기록이 있다.

『宋史·忠義李彥仙傳』: (이언선은) 줄 달린 갈고리(鉤索)를 설치하여, 날마다 금(金)나라 군사들을 갈고리로 낚아채어 사로잡아서 (적의 군사들이 볼 수 있도록) 그들을 성위에서 절구질하듯 찢어 모가지를 베어 죽였다.³³⁾

끔찍하고 슬픈 역사 기록이다.

4. 저지 암기

1) 마름쇠(鐵蒺藜)

(1)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그리고 『삼국지』와의 대조

『삼국연의』에서 마름쇠(鐵蒺藜)는 109회에서 1번 나온다.³⁴⁾

109회: 강유는 한편으로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길에다가 마름쇠(鐵蒺藜)를 뿌려두게 하였다.³⁵⁾

마름쇠(鐵蒺藜)는 역사 『삼국지』에는 나오지 않는다. 위의 묘사는 허구로 꾸며낸 것이다.

32) 宋 曾公亮 『武經總要·守城』: 飛鉤, 一名鐵鴟, 脚鉤鋒長利, 四出而曲。貫鐵索, 以麻繩續之。凡敵人被重甲, 頭有盔笠; 又畏矢石, 不得仰視, 候其聚處, 則擲鉤于稠人中, 急牽挽之, 每鉤可取三兩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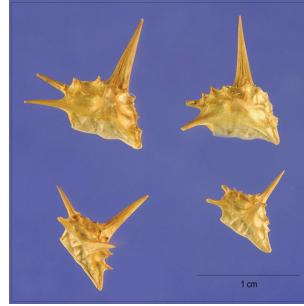
33) 『宋史·忠義李彥仙傳』: 設鉤索, 日鉤取金人, 春斫城上。

34) 남가새(蒺藜)는 94회에서 쇠가시망치(鐵蒺藜骨朵)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도 사용되었다. 앞의 비추관련 94회 묘사 참조.

35) 109회: (姜維)一面令軍士於路撒下鐵蒺藜

(2) 마름쇠(鐵蒺藜)의 정의와 생김새

『병기사전』은 마름쇠를 ‘쇠로 만든 남가새’라고 정의하였다. 남가새(蒺藜)는 원래 學名은 *Tribulus terrestris*, 英文 이름은 Caltrop, Puncturevine Caltrop, Puncture Vine인, 蒺藜科 蒺藜屬 植物을 가리킨다. 그 열매의 크기는 1cm 남짓 되는데 여러 개의 가시가 돋아나 있다. [그림6]은 남가새의 열매이다.³⁶⁾



[그림6] 남가새 열매

『資治通鑑·晉惠帝太安元年³⁷⁾』의 “물러나게 되면 남가새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退則據於蒺藜)”라는 기록에 대하여, 胡三省은 陶弘景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며 주를 달았다.

남가새는 대부분 길에 자라는데, 잎사귀는 넓게 땅을 덮으며, 열매에는 가시가 있다. 그 생김새는 마치 마름(菱)처럼 생겼으나 (그보다는) 작고 세 개의 뿔이 나 있다. 장안(長安) 지역에 가장 많이 나는데, 사람들은 이 때문에 (남가새에 찢리지 않으려고) 나막신을 신고 다닌다. 오늘날 군사 전문가들은 쇠를 부어서 남가새처럼 만드는데, 적이 나다니는 길목에 이를 넓게 뿌리는데, 이 또한 남가새(蒺藜)라고 부른다.³⁸⁾

마름쇠란 남가새 열매를 본 따서 쇠를 부어 만든, 적의 접근·이동·행진을 방해하는 저지 암기의 일종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림7]은 『武經總要前集』에 실려 있는 마름쇠(鐵蒺藜)의 생김새이다.

『六韜』에 마름쇠(蒺藜)에 관한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六韜·軍用』: “좁은 길과 좁은 지름길에는 마름쇠를 펼쳐두는데, 마름쇠의 가시 길이는 4촌(9.24cm), 너비는 8촌(18.48cm), (줄로 연결한) 한

36) 위키백과 중문판 蒺藜 참조.

37) 晉 惠帝 太安 元年是 302년이다.

38) 陶弘景曰: 蒺藜多生道上, 而葉布地, 子有刺, 狀若菱而小, 有三角. 長安最饒, 人以故多著木屐. 今軍家乃鑄鐵作之, 以布敵路, 亦呼爲蒺藜.

세트의 길이는 6척(138.6cm)이상이며³⁹⁾, 모두 1,200개를 준비합니다. 적의 기병과 보병의 접근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⁴⁰⁾

『六韜·軍用』에서 묘사하고 있는 마름쇠는 그 크기가 비교적 큰 것으로 보아 對人用이라기 보다는 對騎兵用 또는 對戰車用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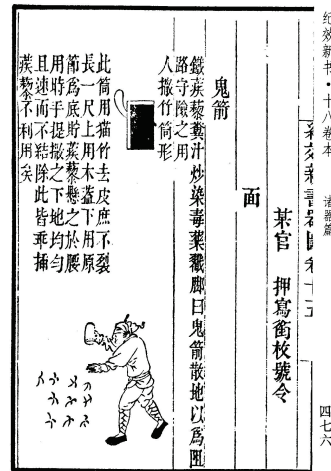
마름쇠는 땅바닥과 강바닥에다 뿌려서 사용하였는데, 피라미드 모서리에 가시가 돌아나 있는 형태였으므로, 아무렇게나 뿌려도 한쪽 끝은 반드시 하늘을 향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대단하였다.



(그림7) 鐵蒺藜

『宋史·扈再興傳』: 호재흥(扈再興)은 밤에 마름쇠를 땅에 빼곡하게 뿌려놓고서 새벽이 되자 달아나는 흉내를 내었다. 금(金)나라 군대가 쫓아오며 달려오다가 마름쇠를 밟아 찢려서 고꾸라진 자가 열에 일곱 여덟이나 되었다.⁴¹⁾

『宋史·蔡挺』: 먼저 마름쇠를 대순성(大順城) 옆의 강물 속에 뿌려두었는데, 하국(夏國)의 기병들이 강물을 건너다가 (마름쇠에 찢려서) 고꾸라졌다. 이들은 놀라서 귀신이 있다고 소리쳤다.⁴²⁾



(그림8) 鬼箭

39) 전국시기 1尺=10寸=23.1cm, 1寸=2.31cm, 4寸=9.24cm, 8寸=8×2.31cm=18.48cm, 6尺=6×23.1cm=138.6cm.

40) 『六韜·軍用』: 狹路、微徑, 張鐵蒺藜, 芒高四寸, 廣八寸, 長六尺以上, 一千二百具。敗步騎。

41) 『宋史·扈再興傳』: 再興夜以鐵蒺藜密布地, 黎明佯遁, 金人馳中蒺藜者十路七八。

42) 『宋史·蔡挺』: 先布鐵蒺藜大順城旁水中, 騎渡水多踬, 驚言有神。

[그림8]은 『紀效新書』에 묘사된 마름쇠 즉 귀전(鬼箭)을 땅에 뿌리는 모습이
다. 뒤로 물러나며 뿌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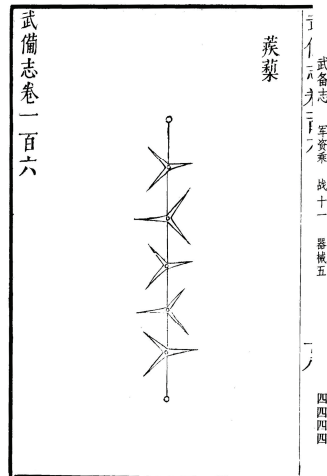
마름쇠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明 戚繼光 『紀效新書·布城諸器圖設』: “귀전(鬼箭): 마름쇠라고 하며, 똥물에 넣어 볶거나 독약을 묻혀서, 발을 찌르기 때문에 귀전(鬼箭)이라고 부른다. 땅에 흩뿌려두어 길을 막거나 가파른 지형에서 적을 막는데 쓴다.”⁴³⁾

[그림9]는 나중에 수거하기 쉽도록 줄로 엮은 마름쇠이다.

마름쇠는 대인용뿐만 아니라 대전차용으로
도 사용할 수 있었다. 공성용 싸움수레인 목려
(木驢)를 상대로 마름쇠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자. 이때 마름쇠는 암기의
성격은 적다고 할 수 있다.

唐 李靖 『衛公兵法·攻守戰具』: “적병이
만약에 목려(木驢)를 사용하여 아군의 성
을 공격해오면, 마름쇠를 성 밑으로 뿌려
서 두껍게 깔다. 마름쇠를 만드는 방법은
숙철(熟鐵)로 만들며, 지름은 1척(30cm), 길이는 1척2촌(36cm), 가시는
네 줄기로 가로세로로 펼쳐서 남가새(蒺藜)처럼 펼친다. 생철(生鐵)을 녹
여서 그 가운데에 부어 넣는데, 중량은 50근(약33kg)이다.⁴⁴⁾ 위에는 코
를 만들어 쇠사슬로 묶어서 아래로 던져서 두껍게 깔는데, (목려가 아군의
성에 접근하다가 마름쇠에 박히면) 도르래로 끌어당긴다.”⁴⁵⁾



[그림9] 줄로 엮은 마름쇠

43) 明 戚繼光 『紀效新書·布城諸器圖設』: 鬼箭, 鐵蒺藜、糞汁炒, 染毒藥, 戳脚曰鬼箭, 散地以爲阻路守險之用。

44) 唐代 小尺 1尺=30cm, 大尺 1尺=36cm인데, 여기에서는 小尺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小尺 1尺=30cm, 1尺2寸=1.2×30cm=36cm. 唐代 1斤=661g, 50斤=50×661g=33,050g

45) 唐 李靖 『衛公兵法·攻守戰具』: 敵若木驢攻城, 用鐵蒺藜下而敦之。其法以熟鐵闊徑尺, 長一尺二寸, 四條縱橫布如蒺藜形, 鎔生鐵灌其中央, 重五十斤, 上安其鼻, 連鎖擲下敦訖, 以輓軸

2) 말 걸이 줄(絆馬索)

(1)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그리고 『삼국지』와의 대조

말 걸이 줄(絆馬索)은 90회에서 동오(東吳) 손책의 병사들이 태사자를 사로잡는 데 쓰는 암기로 1번, 90회에서 마대가 축융부인을 사로잡는 데 쓰는 암기로 1번 모두 2번 나온다.

15회: 태사자는 허겁지겁 달아나려 하였다. 그러나 길 양 옆에서 (숨어있던 손책의 병사들이) 말 걸이 줄(絆馬索)을 한꺼번에 당겨 쳤다. 태사자의 말을 걸어 고꾸라뜨렸다. (숨어있던 병사들이 뛰어나와) 태사자를 사로잡아 (손책의) 영채로 끌고 갔다.⁴⁶⁾

90회: 축융부인은 말안장이 위쪽으로 젖히지면서 말에서 떨어졌다. 원래 마대가 이곳에서 매복하고 있으면서 말 걸이 줄을 써서 말을 걸어 고꾸라뜨린 것이었다. 마대는 축융부인을 사로잡아 큰 영채로 끌고 갔다.⁴⁷⁾

역사 『삼국지』에, 絆馬索은 나오지 않는다. 손책의 병사들이 絆馬索을 써서 태사자를 사로잡았다는 내용은 꾸며낸 이야기이다. 위의 이야기는 『三國志·吳書·太史慈傳』의 “손책은 몸소 공격하여 토벌했고, 마침내 (태사자는 손책한테) 붙잡히고 말았다.”⁴⁸⁾는 기록과 배송지(裴松之) 주가 인용하고 있는 『吳歷』의 “태사자는 신정에서 전투에 패배하여, 손책한테 붙잡히고 말았다.”⁴⁹⁾는 기록을 소설로 꾸며낸 것이다. 축융부인은 역사 『삼국지』에는 나오지 않는 가공의 인물이다. 마대가 絆馬索을 써서 축융부인을 사로잡았다는 내용도 꾸며낸 이야기이다.

(2) 말 걸이 줄(絆馬索)의 정의와 생김새

構上。

46) 15회: 慈急待走, 兩下裏絆馬索齊來, 將馬絆翻了, 生擒太史慈, 解投大寨。

47) 90회: 夫人仰鞍落馬, 原來馬岱埋伏在此, 用絆馬索絆倒, 就裏擒縛, 解投大寨而來。

48) 『三國志·吳書·太史慈傳』: 策躬自攻討, 遂見囚執。

49) 『吳歷』云: 慈於神亭戰敗, 爲策所執。

말 걸이 줄(絆馬索)에 대하여, 『漢語大詞典』은, “숨겨진 곳에 설치하는 줄로, 대부분 상대방의 사람을 태운 말을 줄로 걸어 넘어뜨리는데 사용한다.”⁵⁰⁾라고 하였고, 『國語辭典』의 정의도 비슷하다.⁵¹⁾ 중국의 명대 唐順之가 엮은 병법서인 『武編前集』에 그 사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武編前集』: 말 발걸이 줄을 사용하는 법: 일반적으로 적의 병영 양 옆이 마치 서로 지켜주고 막아주는 것처럼 병영의 곁에 (가까이) 세워졌으면, 이곳에다가 말 발걸이 줄을 설치한다. (아군이) 복병을 숨겨둔 뒤에 적의 한쪽 병영을 공격하면, (적의) 다른 한쪽 병영이 만약에 (공격받는 쪽을) 구해주려고 먼저 움직이게 되면, 반드시 이 말 걸이 전술에 걸려들게 되어 있다. (아군의) 복병은 양 옆에서 줄을 당겨 낚아채고 화살을 마구 쏘아댄다. 그런데 이러한 사용법으로, 적의 말을 빼앗고 적군에게 손상을 입히려면, 말 걸이 줄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꼼꼼히 준비해야한다. 이를테면, 줄을 설치하고 말뚝을 박을 때, 밤에 소리가 나게 해서 적의 군영을 두렵게 하거나 놀라게 하면 안 된다. 말뚝 수십 개를 박고, 땅에서부터 4척5촌(153cm)⁵²⁾ 떨어지게 설치하는데, (상황에 따라) 여러 개의 줄을 설치한다. 만약에 적의 병력이 줄 있는 데까지 와서 (걸려 고꾸라지면), (아군은) 매복하고 있다가 놀라 달아나는 적을 쫓아가서 죽인다.⁵³⁾

위의 기록에 따라서 그 사용법을 추측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말 걸이 줄(絆馬索)의 한쪽 끝은 길 가의 한쪽 나무나 말뚝에 지면에서 약 150cm 떨어진 높이쯤에 묶어 단단히 고정시킨다. 맞은편 길 가의 나무나 말뚝에는 같은 높이에 쇠고리를 박고, 쇠고리에 말 걸이 줄(絆馬索)의 다른 한쪽 끝을 걸어 느슨하게 풀어 둔다. 말 걸이 줄(絆馬索)의 중간부분은 적의 눈에 띄지 않도록 지면 아래에 흙을 파서

50) 『漢語大詞典』: 絆馬索: 設於隱蔽處的繩索, 多用於絆倒對方的坐騎。

51) 『國語辭典』: 絆馬索: 지면에 숨기며, 적의 말을 걸어 넘어뜨리는데 쓰는 줄 隱藏在地面, 用來絆倒敵人馬匹的繩子。

52) 明代 裁衣尺 1尺=34cm, 量地尺 1尺=32.7cm, 營造尺 1尺=32cm, 4척5촌을 裁衣尺으로 계산하면, 4.5×34=153cm이다.

53) 明 唐順之, 『武編前集』: 絆馬索法: 凡彼兵營兩邊, 如相護遮於營邊, 安索於此。伏兵埋藏, 然後劫那一營, 此營若救先動, 必中此索之計。伏兵兩勒習射。乃是法, 奪馬損軍, 安索要詳細。假令安下索用椿, 不可夜響, 恐驚營裏。椿數十條離地四尺五寸, 可安五七道。如彼兵到索邊, 埋伏後, 追殺驚走。

흙이나 나뭇잎으로 살며시 덮어둔다. 아군 병사들은 매복하여 이 줄을 잡고 있다가, 적의 기병이 달려가며 지나갈 때, 갑자기 줄을 잡아 당겨 적의 말이 이 줄(絆馬索)에 걸려 고꾸라지면, 적의 장수와 말을 사로잡는다. 줄을 비교적 높게 설치하는 것으로 보아 걸어 고꾸라뜨리려는 주요 사용대상은 말보다는 사람에게 있다고 여겨진다. 말을 다치지 않게 빼앗고 적 기병을 사로잡으려는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과학적으로는 물체의 관성(慣性)을 전투에 응용한 것이다.

5. 그밖에

1) 독약(毒藥)

(1)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그리고 『삼국지』와의 대조

『삼국연의』에는 매우 독특한 암기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독약이다. 길평이 조조에게 사용하려 제조하였던 이 독약은 액체이기 때문에 罏라고 부르는 어렵지만, 조조에게 뿌리는 방법으로 살상을 가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화학 암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⁵⁴⁾

23회: 길평은 몰래 독약을 깊숙이 숨긴 채 승상 부로 들어갔다. 약이 반쯤 졸자, 길평은 몰래 독약을 넣었고 몸소 조조에게 바쳤다. 조조는 독이 들어있는 줄 알고, 일부러 녹장을 부리며 먹지 않았다. 길본은 일이 이미 새어나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후다닥 조조에게 달려들어 그의 귀를 잡아당겨 귀구멍에 약을 들이부으려고 하였다. 조조가 약그릇을 밀쳐내니 약그릇이 내동댕이쳐지면서 약이 땅바닥에 뿌려졌다. 그러자 땅 바닥에 깔아놓은 벽돌들이 썩썩 터지듯이 갈라졌다.⁵⁵⁾

54) 周緯는 『中國兵器史稿』에서 暗器의 종류를 분류하면서, 약물을 품어내는 것(藥噴)을 1종류로 설정하였다.

55) 제23회: 吉平 暗藏毒藥入府。..... 藥已半乾，平已暗下毒藥，親自送上。操知有毒，故意遲延不服。..... 平知事已泄，縱步向前，扯住操耳而灌之。操推藥潑地，磚皆迸裂。

역사 『삼국지』의 기록에 따르면, 길평(吉平)의 본디 성과 이름은 길본(吉本)이다. 위의 이야기는 『三國志·魏書·武帝紀』 건안 23년의 다음 기록을 바탕으로 꾸며진 것이다.

『三國志·魏書·武帝紀』: 건안 23년(218년) 봄 정월, 한(漢)나라 조정의 태의령(太醫令)⁵⁶인 길본(吉本)이 소부(少府)⁵⁷인 경기(耿紀)와 사직(司直)⁵⁸인 위황(韋晃) 등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허도(許都)를 공격하고, 승상장사(丞相長史)⁵⁹인 왕필(王必)의 군영을 불태웠다. 왕필은 이들을 토벌하여 모가지를 베었다.⁶⁰

길본이 독약을 사용하여 조조를 죽이려고 했다는 내용은 역사 『삼국지』에는 어디에도 없다. 태의령이라는 그의 관직을 가지고, 소설가가 상상력을 발동하여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다. 땅 바닥에 뿌렸을 때, 깔아놓은 벽돌들을 갈라지게 할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액체 화학약품은 지금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독약이라는 것도 당연히 소설가가 꾸며낸 것이다.

2) 냉전(冷箭)과 암전(暗箭)과 암노(暗弩)

(1) 냉전(冷箭)과 암전(暗箭)과 암노(暗弩)의 뜻

냉전(冷箭)은 15회·41회·68회·74회·82회에 모두 6번 나온다. 암전(暗箭)은 27회에 1번 나온다. 모두 '냉전(冷箭)을 쏘다' 또는 '암전(暗箭)을 쏘다'는

56) 태의령(太醫令): 관직 이름. 태상에 속해있는 백관(百官)들의 질병을 치료하였으며, 소부에 속해 있는 궁정(宮廷)의 관원들의 질병을 치료하였다. 밑에 거느리고 있는 어의(御醫)가 293명이다.

57) 소부(少府): 관직 이름. 한대(漢代) 구경(九卿)의 하나, 후한 때에는 궁중의 제왕이 입을 옷(御衣)과 보물들과 진귀한 먹을거리들을 맡아보았다.

58) 사직(司直): 관직 이름. 승상(丞相)을 도와 일을 처리하였으며, 법을 어긴 사람들을 검거하였다.

59) 승상장사(丞相長史): 관직 이름. 승상부(丞相府)의 주요 관원으로 주로 부(府)안의 공무를 총괄하며 승상을 돕는다. 조조가 승상으로 있을 때 좌우장사(左右長史)를 두었다.

60) 『三國志·魏書·武帝紀』: 二十三年春正月, 漢太醫令吉本與少府耿紀、司直韋晃等反, 攻許, 燒丞相長史王必營, 必 討斬之.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냉전과 암전은 『병기사전』에 나오지 않는다. 『漢語大詞典』은 냉전(冷箭)에 대하여, “상대가 방비가 없는 틈에 몰래 쏘는 화살로, 남몰래 피를 내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비유한다.”⁶¹⁾라고 하였고, 암전(暗箭)에 대하여, “몰래 쏘는 화살”⁶²⁾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냉전이나 암전은 암기(暗器)의 종류가 아니라, 화살을 ‘몰래’ 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암노(暗弩)는 59회에 1번 나온다. 암노(暗弩)에 대해서도, 『漢語大詞典』과 『병기사전』 모두 표제어가 없다. 『삼국연의』에서 암노(暗弩)는弩의 종류가 아니라, 몰래 숨겨둔 노꾼(弩手)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周緯는 『中國兵器史稿』에서 암기를 4종류로 분류하면서, 기계로 쏘는(機射) 암기를 배치하였는데, 일부 노(弩)들을 제시하고 있다. 『삼국연의』에 나오는 노(弩) 가운데, 암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무인발사장치가 달려 있는 복노(伏弩)와 와궁(窩弓)을 들 수 있다.⁶³⁾

6. 결론

본고는 『삼국연의』에 나오는 투척·포획·저지 암기들을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고찰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삼국연의』에 나오는 모든 투척·포획·저지 암기들은 역사서인 『삼국지』의 기록에는 없는 암기들이었다. 이들 암기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모두 소설가가 상상력을 발동하여 지어낸 허구였다. 둘째, 이들 암기들은 戰國時期부터 明代에 이르기까지 두루 쓰였던 암기

61) 『漢語大詞典』: 冷箭: 乘人不防暗地射出的箭, 比喻暗地設計害人。

62) 『漢語大詞典』: 暗箭: 從暗地裏射出的箭。

63) 복노(伏弩)와 와궁(窩弓)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홍윤기, 『三國演義』에 나오는弩에 관하여 『中國語文論叢』66輯,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4.弩가 아닌 활로 쏘는 화살 가운데, 화살의 길이가 짧고 속도가 빨라서, 날아오는 화살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아기사(鞭箭, 片箭)을 암기로 사용할 수 있겠으나, 아기사(鞭箭)는 『삼국연의』에는 나오지 않는다.

『삼국연의』에 나오는 투척·포획·저지 암기						
번호	분류	암기명칭	『三國志』	출처	사용자 대상자	비고
1	투척	流星鎚	없다	明『三才圖會』, 明『武備志』	魏 卞喜:가공인물 關羽	허구
2	투척	三個流星鎚	없다	없다	魏 王雙:변형인물 張嶷	허구
3	투척	飛鎚	없다	明『武備志』	魏 卞喜, 羌兵:가공인물 關羽, 諸葛亮	허구
4	포획	套索	없다	?	吳兵 關羽	허구
5	포획	鉤索	없다	戰國『六韜』, 宋『武經總要』	魏兵 龐德	허구
6	저지	鐵蒺藜	없다	戰國『六韜』, 宋『武經總要』, 明『武備志』	蜀 姜維 徐質	허구
7	저지	絆馬索	없다	?	吳兵 太史慈, 祝融夫人	허구
8	그밖에	毒藥	없다	없다	魏 吉平 曹操	허구

들이었다. 셋째, 이들 암기들의 사용자는 가공되거나 변형된 다양한 인물들이었다. 암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하였던 蜀의 姜維를 제외하면, 대체로 부정적 형상의 黃巾賊 출신의 魏나라 장수나 吳나라 병사들과 이민족이었다. 이는 소설가가 의도적으로 부정적 인물의 형상을 빚어내기 위하여 암기를 그에게 짚지었음을 뜻한다. 넷째, 암기로 습격 받는 인물들은 조조와 관우처럼 부정적이거나 긍정적 인물을 두루 아우르고 있으며, 각 집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들이다. 다섯째, 개성적 인물 형상을 빚어내기 위하여, 소설가는 특정 암기를 특정인물의 직업이나 출신과 관련지어 묘사하였다. 여섯째, 소설가는 스토리의 순간적 사태 전환 및 짜릿한 역전이 필요하거나, 또는 긍정적 인물의 최후가 더욱 장렬하고 비통한 느낌을 줄 필요가 있을 때, 암기를 적절한 소품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參考文獻〉

- 范曄 撰, [唐] 李賢 等注, 『後漢書』, 北京, 中華書局, 1965.
- 陳壽, 『三國志』, 北京, 中華書局, 1959.
- 盧弼 撰, 『三國志集解』, 臺北, 宏業書局, 民國61.
- 羅貫中 原著, 『三國演義』,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2.
- 羅貫中 著, 毛宗崗 評改, 『三國演義』,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 王圻, 王思義 編集, 『三才圖會』,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 宋應星, 『天工開物』, 北京, 中國社會出版社, 2004.
- 編輯委員會, 『中國畫像石全集』, 濟南, 山東美術出版社, 2000.
- _____, 『中國畫像磚全集·河南畫像磚』, 成都, 四川美術出版社, 2005.
- _____, 『臨沂漢畫像石』, 山東美術出版社, 2002.
- 曾公亮 撰, 『武經總要』, 『中國兵書集成』, 北京, 解放軍出版社, 1988.
- 茅元儀 撰, 『武備志』, 『中國兵書集成』, 北京, 解放軍出版社, 1989.
- 唐順之 撰, 『武編前集』, 『中國兵書集成』, 北京, 解放軍出版社, 1989.
- 陸錫興, 『中國古代器物大詞典 - 兵器·刑具』,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2002.
- 孫機 著, 『漢代物質文化資料圖說』,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
- 周緯 著, 『中國兵器史稿』,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2005.
- 周緯 著, 『亞洲古兵器圖說』, 北京, 中國友誼出版公司, 2009.
- 王兆春, 『中國軍事科技通史』, 北京, 解放軍出版社, 2010.
- 市川定春 著, 『武器事典』, 東京, 新紀元社, 1996.
- _____, 『圖說·中國武器集成』, 東京, 學習研究社, 2006.
- 홍윤기, 『『삼국연의』에 나오는 망치류 병기에 관하여』 『中國語文論叢』 72輯,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5.
- 홍윤기, 『『三國演義』에 나오는 弓弩 戰術에 관하여』 『中國語文論叢』 67輯,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5.
- 홍윤기, 『『三國演義』에 나오는 弩에 관하여』 『中國語文論叢』 66輯,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4.
- 홍윤기, 『『삼국연의』에 나오는 손으로 던지는 暗器에 관하여』 『中國文化研究』 33輯, 서울, 중국문화연구학회, 2016.

〈Abstract〉

A Study of Throwing, Capturing and Obstructing Hidden Weapons
in *The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三國演義』)

Hong, Youn-Ki

There are some throwing, capturing and obstructing hidden weapons in *The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三國演義』).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features of the novel description about these hidden weapons. For example, Meteor hammer(流星錘), Three meteor hammer(三个流星錘) and Flying hammer(飛錘) belong to throwing hidden weapon. Lasso(套索) and Hooking rope(鈎索) belong to capturing hidden weapon. Caltrops(鐵蒺藜) and Tripping horse rope(絆馬索) belong to obstructing hidden weapon.

Through this investigation, we can know the following features: The first, All of these throwing, capturing and obstructing hidden weapons in *The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三國演義』) are actually non-existent weapons in *Th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三國志』). The second, the most characters who are using these hidden weapons are fictional characters that the writer give them negative images. The third, as the novel props, these hidden weapons make the excellent action which cause momentary inversion of the battle condition, make heroes death more glorious and more grievous.

關鍵詞 : 삼국연의(三國演義), 삼국지(三國志), 암기(暗器), 투척, 포획, 저지.

이 논문은 2016년 10월 9일에 접수되어 2016년 11월 7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6년 11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